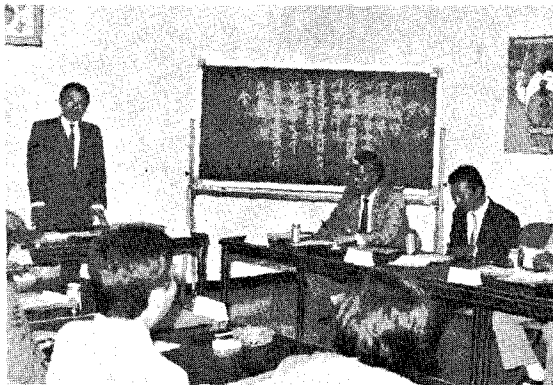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89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등록·허가제검토 현행대로 실시키로—



89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성원보고, 회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 부의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들어 채란계 소득표준을 인하, 이상구과문 대응에 대한 그간의 업무추진과 사료의 부가세인하 및 국산옥수수

사용문제 등에 대한 축산단체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규성부장의 1차 이사회 요약보고에 이어 황인옥 전무는 △소비촉진 홍보사업 △이상구 프로방영 대책강구 사항 △양계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조직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심포지움 및 순회강습회 △법인 전환절차 해설 및 세무강좌 △종계일반검정 및 닭경제능력검정 사업실시 △무허가 부화장 고발센터 운영 △회원실태조사 △증추사육농장 현황조사 △대정부 건의 및 조치사항 △분과위원회, 단체협의회, 채란양계산업 안정화추진협의회, 단체장조찬회 등 회의결과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어서 부의안건 심의회에서는 축산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본회의건 제시건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듭한 후 본회 공식입장으로 ▲대기업의 양계업 참여금지 대상기업 설정기준은 원안에 동의하며 ▲등록·허가제에 대한 본회의건은 현행대로 하되 금년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건의키로 하였다.

이어서 천호(산란계) 분회 및 이천(지구) 산란계 분회의 승인이 있었고 기타사항으로 6월중 임직원 수련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범축산인 체육대회 참가

—축산신보 주최 4월 22일 수원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본회 직원들은 지난4월22일 축산신보 주최로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범축산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축산인의 결속과 제위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본회를 비롯하여 국회농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중앙케미칼 등 축산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참가하여 축구, 배구, 릴레이, 단축마라톤 등의 종목으로 열전을 벌였다.

본회는 배구와 릴레이 경기에 참가하였고 종합우승은 축협중앙회가 차지했다.

채란계산업 안정화추진 협의회 개최

제4차, 4월 18일 본회 회의실

—채란계산업 장기발전계획서 작성기로 협의—

채란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채란양계산업 안정화추진협의회(회장 오봉국) 제4차 회의가 지난 4월 18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채란업계 조직강화 ○가격안정기반 확립 ○국제경쟁력강화 방안모색 ○채란양계업 정책개발 및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14일 학계, 협회, 조합, 계우회대표, 지역대표 등 23명으로 조직되어 회비는 협의회원 부담으로 매월 1회씩 정기모임을 갖고 일관성있게 채란양계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번 제4차 협의회에서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전회의록 검토가 있는 후 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채란업 안정화 장기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계속 검토해 오던 자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그동안 농림수산부가 추진하는 안에 대한 설명과 일본의 자조금제도 운영에(발표 임덕성 본회 사무국장) 대하여 검토하고 자조금제도의 개념을 채란계·육계 포함하여 실시키로 하고 소소비홍보사업 추진자금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소비자연구사업 △수매비축 조절사업 및 기타 공동사업 실시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며 법제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개념을 정리한바 있다.

본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홍보의 일환으로 회의를 개방하고(취재가능) 채란계산업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보고서 제작을 위하여 계우회연합회를 중심으로 계우회별로 2천만원의 기금조성 활동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협의회 회장은 오봉국 교수(서울농대학장) 부회장은 정창각 사장(삼주농장 대표), 박영인 회장(USFGC), 간사에는 정선부 과장(축산시험장 기금과)이며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협회조직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가금학회에 연구용역의뢰—

육계, 채란, 육용계부화중계, 채란계부화중계, 감별 등 5개분과로 나누어진 본회는 효율적인 협회조직과 양계업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조직 및 운영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초창기 양계산업을 이끌어 왔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한국가금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회운영방안모색을 추진중에 있다. 본연구는 9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국계우회연합회 본회 가입키로

—5월초, 본회 사무실로 이전예정—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4월14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채란양계인의 단합과 조직강화를 위해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조직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진 채란업계 일원화로 의 통합으로 각지역 계우회는 모두 본회회원으로 가입함은 물론 사무실을 5월초순경 본회분과위원회실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업무활성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채란양계인들은 단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의 목소리로 응집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와 전국계우회연합회가 동시에 존립하므로써 사안별로 각각 할일이 있으므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준구

닭고기·계란 요리강습 및 실습

—청주시·서울시에서 3회 실시—

전국닭고기요리습씨대회에서 개발된 입상요리는 물론이고 간편한 계란요리 등을 널리 보급시키고 닭고기·계란의 영양적 우수성을 재인식시켜 닭고기·계란 소비량을 증진시키고자 양계산물 요리강습, 실습 및 영양강의를 실시하였다.

4월25일(화)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2회, 4월27일(목) 강동구민회관에서 1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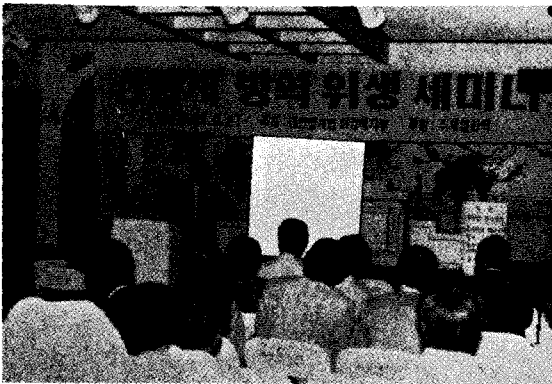
행사 주최는 청주시여성회관과 서울시 강동구청이었으며 주관으로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진행하고 본회는 양계산물 우수성 영양강의를 하였다.

본행사는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을 하게 되어있어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는 없어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역내 주부, 파출부 등이 주로 모였다.

실습된 완성요리는 시식회를 통해 소비 하였다.

경주, 산란계 방역위생 세미나 개최

—본회 경북지부 주최, 제일화학 후원—



본회 경북지부(지부장 조동필)가 주최하고 (주) 제일화학이 후원한 산란계 방역위생세미나가 4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터 경북 경주시 정화예식장에서 개최되었다.

부산·대구·홍성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이번 방역

위생세미나의 강사로는 오경록 박사(천호부회장)가 초빙되었다.

경주일원 130만수 채란양계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조동필 지부장의 인사에 이어 효과적인 '파리구제 방안'과 '산란계 방역위생'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오경록박사는 강의에서 실용계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경제형질에 미치는 영향, 계사구조, 양계장 소독의 방법, 급수, 중추사육 현황, 백신접종 프로그램, 닭겨모기 방제방법 등에 대한 학술적인 배경과 충분한 야외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양계농가의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많은 양축가의 호응을 받았다.

한편 효과적인 파리구제 방안으로 라바덱스를 사료에 첨가해 파리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공해방지 차원에서 쾌적한 계사환경에 대한 제일화학 측의 발표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 양계·양돈 계열화 좌담회

4월 28일 양돈회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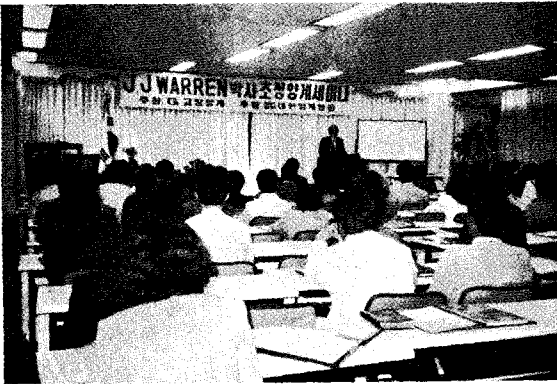


본회와 대한양돈협회, 미국사료곡물협회는 지난 4월 28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양계·양돈 계열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통합경영체계의 개요(박영인 회장), 계열화사업 지원(이인형 과장), 육계계열화

현황(정문성 기자), 체란계열화 사례(김중경 사장), 기업주도 양돈계열화 현황(노영한 전무), 축협 양돈계열화 사업(정흥기 과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좌담회 내용은 6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J. J WARREN 박사 초청 양계세미나 —고창양계 주최. 본회 후원—



본회가 후원하고 고창양계(대표 신홍종)가 주최하여 지난 4월1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와렌박사 초청 양계세미나를 가졌다.

전남대 최정욱교수의 통역으로 가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닭의 품종을 10년전보다 산란수에서 30개, 계란 총무계에서 2kg이상 증산하게 계량해 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칼브와렌의 산란성적은 6~10주령동안 자라온 방법에 적접 영향을 받게 되며 사양가 70% 정도가 육성기간중 잘못으로 산란기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육성시 18주령 체중을 1.5kg, 정강이 길이 104mm를 유지시키기 위해 고단백사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초산개시일 기준 매일 21kg의 단백질이 필요로 하여 16.5% 단백질사료를 이용하면 1일 130g을 급여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데칼브와렌 개량은 78년이후 11년동안 생산능력이 31개(H·H 산란수)가 증가하여 311개에 달하고 있으며 성성숙일령은 7.8일이 당겨졌다고 밝혔다.

육용계 부화종계 분과위원회

—위장수입 조사단 구성—

육용계부화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순오)는 지난 4월26일 본회 회의실에서 4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업계정보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병아리가격을 놓고 부화업자와 육계업자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같은 양계인으로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병아리가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편 육용CC를 수입하여 PS로 둔갑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로만품종을 취급하는 복지농장 박수남사장의 해명을 들었다.

위원회에서는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고 의구심을 없애므로써 업계의 불신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입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4월 육계분과위원회가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예상했던 육계시세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분석하였다. 부화업계에서도 병아리 시세가 좋아서 30% 병아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병아리 생산을 최대로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불법적인 옹주 등이 이에 가세해 육계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여건도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불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앞서 공직에 있으면서 양계산업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이인형과장에게 육계인의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육계산업 현황파악 위해 시찰단 파견 —하루미, VV 전시회 및 육계계열화산업 둘러봐—



에히메 식조센터 방문 기념촬영

일본의 육계산업 계열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4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동안 본회가 주관하여 육계인 및 양계관련인 시찰단 20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시찰단은 본회 임덕성사무국장을 단장으로 사료업체, 양계기계기구업체, 도계업체, 육계인 및 분회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양계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한 일본의 도계장, GP 센터, 육계농장 및 VIV - ASIA 제2회 축산기술전, 후꾸오까 아시아-태평양 박람회를 참관하였다.

일본의 양계산업도 최근 수입개방 압력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키 위해 1차 생산물의 가공처리 단계에서 벗어나 2차 가공품 생산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계장에 있어서도 규모자체의 경쟁보다는 가공품 생산량에 의한 소득량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 일본도 88년에 닭고기수입량이 27만2천톤정도에 이르고 있어 양계사양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인력난에 부딪쳐 종사자의 고령화까지 겹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본의 닭고기 소비성향 수준은 개방계사와 무창계사의 닭을 선택해가는 정도까지 와있어 육질에 대

한 관심도 대단히 높다.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지금보다 수입개방압력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양계산업을 하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산비를 가능한 낮추려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임덕성(본회사무국장), △ 김용화(본회편집국대리), △ 김남기(고창기계전무), △ 김이현(고창양계 부사장), △ 박현근(고창기계과장), △ 이영춘(고창기계주임), △ 최병용(고창기계주임), △ 윤재섭(시목농장대표), △ 이하창(선진사료영양부장), △ 이상용(선진사료영양부대리), △ 이한주(선진사료영양부주무), 민동기(선진사료영양부과장), △ 최호연(현풍산업실장), △ 한영철(양계업), △ 손세창(하림식품공과과장), △ 김남균(하림식품사육부대리), △ 윤재현(축산신보취재기자), △ 김성수(영성농장대표), △ 최상윤(대한제당마켓팅부장), △ 최석호(대한제당사료축산과장)

양계인대상 광고용 홍보물 전시

—본회 현관에 전시—

본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 정보를 교환코자 축산인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협회 입구에 양계관련 업체 광고용 홍보 전시대를 설치해 현재 각종 업체에서 전시 중에 있다.

본전시대는 동물약품, 축산기계, 기구 등 각종 양계관련 업체의 샘플, 팜프렛 등을 전시할 수 있으며 전시된 홍보물은 본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본 전시대의 가장 큰 장점은 양계인과 축산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전시 코너에는 축산관련 업체는 누구든지 활용 할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홍보실로 문의바람.

무허가 부화장 고발센터 지속운영

본회는 등록·허가된 종계, 부화장을 보호육성하고 실용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사전방지하여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4월15일부터 무허가 부화장 고발센터를 설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않고 종계업, 부화업을 하고있는 자가 있어 생산 및 수급조절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항상 가격이 불안정할뿐 아니라 불량추의 생산공급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연, 혈연 등의 관계에다 또한 직접 거래상대이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고발사태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고발자의 비밀을 절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기회에 무허가 부화장과 미등록 종계장이 일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

고발내용의 신빙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신분을 밝혀주기 바라며 고발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로 한다. 고발이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법사실을 확인 후 즉시 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설치기간 : 1989. 4. 15~12. 31

○설치장소 : 본회 지도조사부 (588-7651~4)

국회에서 발의한 약사법중 동물약품 취급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

본회를 비롯한 7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룡)은 지난 3월 3일 국회농림수산업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안 심의중인 동물약품 취급에 관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견해를 밝혀 건의하였다.

동물용 의약품은 그 사용대상이 동물이기 때문에 가축의 질병예방과 방역 그리고 축산물의 위생적 생

산관리를 직접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물 소관으로 하므로써 동물용으로 전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취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이번 약사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의약품을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 특성상 많은 문제와 유통·판매단계에서 사회적 비리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물의약품의 취급과 관리를 약사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유통 단계에서 만이라도 수의사도 취급 및 관리하는 공동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양축농가와 축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을 동시에 보호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고·대학 학교조리실습 및 영양강의 -4월까지 3개교 1,050여명 실습-



본회가 계속사업으로 지원·실시하고 있는 여대·대학 학교조리실습 및 양계산물우수성강의를 3월부터 시작해 4월까지 3개교를 실시해 총1050여명이 실습을 마쳤다.

한양여전, 고려대병설보건전문대, 보성여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닭고기와 계란 요리를 강습 및 실습, 시식회를 가졌으며 닭고기와 계란의 영양적 우수성과 특성에 대한 강의도(본회 홍보담당직원) 아울러 진행되었다.